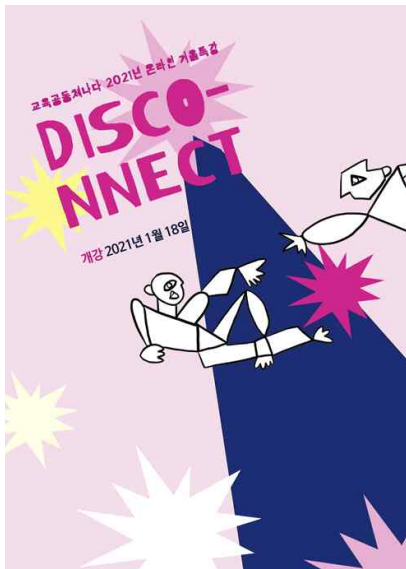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겨울

방향성특강

DISCO-NNECT

참가안내



중등부 미디어 K-컬처, 폭탄처럼 반짝이는 5강

★ 즐기는 것을 넘어 사회와 현실을 읽어내는 K-컬처 분석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고등부 미디어 BLACK MIRROR : 미디어, 거울 혹은 블랙홀 5강

★ 뇌를 마사지하고 몸을 지배하여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미디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활용하기

학부모 특강 그들이 사는 세상 :

당신과 살지만 미디어가 키운 21세기 아이들

★ 특강 참가자의 가족, 보호자를 위한 학부모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겨울특강 “DISCO-NNECT” 기획 소개 및 진행 안내

1. 초대말씀

교육공동체 나다에서는 인문학에 관심은 있지만, 주말 강좌에는 참가하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방학마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여름, 전 세계를 뒤덮은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방학 특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받는 기운이 의미가 되고 활력이 되는 단체인 나다로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이 시기 동안 경험한 모든 변화는 이후의 일상에도 커다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래야 하듯이 나다의 활동가들 역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합니다. 인문학 교육 단체로서 나다는 이 시점에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할지, 나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는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야 하는지, 코로나 19가 불러온 변화를 실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여전히 완수하지 못했지만 미뤄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방학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의 특강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온라인 강좌가 코로나 19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방식도 아니고 심지어 코로나 19 이후에는 모든 교육 기관에서 시행했던 터라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나다 역시 일상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온라인 강좌를 이미 경험했고 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온라인 강좌를 선택하기 망설여졌던 이유는 관계 형성에 큰 비중을 두는 나다 강좌의 특성상 온라인 강좌의 한계에 대해 다소 민감하게 우려했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방향 미디어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소통의 방식을 다변화시켰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라난 미디어 환경은 분명 이전 세대와 다른 감각으로 확장된 인간형으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지점은 나다의 교육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지금 나다에 주어진 숙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체념을 넘어 주어진 미디어 환경 안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 10월에서 12월까지 포천시가 주최하고 나다에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다의 미디어 교육의 한계와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다는 이전부터 제도 교육 안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방식의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디어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미디어는 이미 친구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사회학자 올리버 벅이 20세기에 이미 지적했듯이 기후 변화나 경제 붕괴, 감염증의 위협 같은 거대한 위험만큼이나 일상적 삶이나 관계의 위험성도 심각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술과 혼밥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발달은 인간관계의 삭막함을 파고들어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보다 더 다정하게 내 욕구를 채워줍니다. 이것을 과연 발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 나다에서 준비한 겨울 특강에서 우리는 예전처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강이면 만날 수 있던 누군가와 예전처럼 손을 잡고 끌어안고 반가움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니터 너머에 서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날 우리 서로는 직접 만났던 예전 특강에서 만났던 어느 날보다 더 친근할 수 있을까요? 더 따뜻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겨울날 마주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우리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거 어느 때보다 그리운 감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강에 나다가 떠안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겨울, 나다의 첫 온라인 방학 특강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2. 개설 강좌(모든 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좌 전, 접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중등부 미디어] K-컬처, 폭탄처럼 반짝이는 (5강)

- ★ 즐기는 것을 넘어 사회와 현실을 읽어내는 K-컬처 분석
- ▲ 참가자 14~16세 △ 일시 2021년 1월 18~22일, 오전 10~12시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 참가자 14~19세 △ 일시 2021년 1월 18~22일, 오후 1시~3시

[고등부 미디어] BLACK MIRROR : 미디어, 거울 혹은 블랙홀 (5강)

- ★ 뇌를 마사지하고 몸을 지배하여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미디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활용하기
- ▲ 참가자 17~19세 △ 일시 2021년 1월 18~22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학부모 특강] 그들이 사는 세상 : 당신과 살지만 미디어가 키운 21세기 아이들

- ★ 특강 참가자의 가족, 보호자를 위한 학부모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강좌 신청시 꼭 참가 부탁드립니다!
- △ 추후 일정 안내 예정

3. 강의 시간표

강의방법 및 시간	zoom 온라인
오전 10:00~12:00	중등부 미디어 “K-컬처, 폭탄처럼 반짝이는”
오후 1:00~3:00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오후 3:30~5:30	고등부 미디어 “BLACK MIRROR : 미디어, 거울 혹은 블랙홀”

4. 참가 신청

- 개강 : 2021년 1월 18일
- 접수 : 2020년 12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 모든 강의는 zoom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 강좌후원금 : 강좌 1종 5만원(회원 20% 할인, 납부예외 문의)
- 계좌 : 국민은행 762302-04-169524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 문의/신청 : <http://nada.jinbo.net> 방학특강 게시판, 02-324-0148, 010-7133-2305
- 후원 : 민들레출판사, 오늘의 교육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겨울특강 “DISCO-NNECT” 강좌별 소개

미디어 중등	K-컬처, 폭탄처럼 반짝이는 (5강)
	★ 즐기는 것을 넘어 사회와 현실을 읽어내는 K-컬처 분석
참가자	14~16세 초등부 청소년
일시	2021년 1월 18~22일, 오전 10~12시

여러분은 혹시 몰래 스마트폰을 보다가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라는 어른들의 잔소리에 화들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지고 싶은 아이돌의 굿즈를 부모님 몰래 갖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택배를 대리 수령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세상은 청소년과 대중문화 사이를 멀리하려 애를 쓰지만, 고작 그런 잔소리로 거리를 두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달콤함에 빠진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문화를 가벼운 즐길 거리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매력과 묘한 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잊고 싶은 현실을 외면하게 해주기도 하고,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건드리기도 하며, 오감을 자극해 환상의 세계를 여행 시켜 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 시켜 KPOP, K-컬처 같은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세련된 한국의 대중문화라면 그 힘은 더욱더 대단하겠죠.

만약 우리가 이 유혹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대중문화는 그 어떤 교과서나 공부보다도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부조리를 재미있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자칫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 세상에 관해 여러 물음을 K-컬처를 통해 끄집어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한 금지와 허용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대중문화를 마주하고 즐기기 위한 이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강_ 트롯왕이 떴다 : 그들은 왜 트로트에 열광할까

한동안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트로트가 다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

대에 치우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인기를 반영하듯 계속해서 새로운 가수가 등장하고 있고, 각 가수의 팬덤은 아이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광적이라고 하네요.

트로트는 어떻게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대중의 취향이 변화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디어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종종 대중의 취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의 취향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요. 미디어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트로트 열풍을 통해 미디어의 숨은 음모를 찾아봅시다.

2강_ 당신의 부캐는 무엇입니까 : 멀티 페르소나의 이유

요즘 부캐를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것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본래 모습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캐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꿈꾸나요. 그렇게 내 속의 다른 모습을 꺼내 본다면 우리도 연예인들처럼 짜릿한 희열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같이 부캐의 세계에 빠져보기로 해요. 그러다 보면 부캐가 왜 유행하는지, 우리의 일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알 수 있을 거예요.

3강_ 예능, 잘 보고 계신가요 : 재미의 심리학

예나 지금이나 예능 프로그램은 가볍게 재미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흔히 찾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예능을 두고 ‘예능에서 무슨 의미를 찾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르의 예능이 인기를 끄는가에 따라 시청자들이 무엇을 재미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인기에 따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능의 목적이 그저 재미라고 해서 그 안에 사회적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색다른 재미로 주목받았던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재미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일 수도,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변화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4강_ LOVE YOURSELF : KPOP의 진화

꽤 오랜 기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세련된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를 부러워하곤 했습니

다. 그래서 현재 BTS의 위상은 KPOP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의 진화를 증명하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의 강국이 되었고 굳이 BTS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어떤 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은 결코 문화적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문화 수출 강국 한국과 K-컬처의 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KPOP과 BTS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5강_ 유튜브 사피엔스 :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너’는 존재한다.

개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미디어는 과거엔 그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주류 문화 정도의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어마 무시하게 커져서 신문·방송과 같은 거대 미디어를 압도하고 이끄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방송의 바다에서 우리는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팽창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욕망이라는 감정은 결국 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이 사회의 민낯을 함께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영상이 뒤섞여 있는 개인 미디어의 세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욕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입문 중고등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2021년 1월 18~22일, 오후 1~3시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anitas(인간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인간’이라는 동일률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만 몰라본 게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속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은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대상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를 좁혀나가기 이전에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 즉 ‘거리두기’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나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공부든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태도 없이는 학문적인 성취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부에, 특히 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공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인문학적 사고가 실종된 공부의 과정은 공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다에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인 셈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강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싸움의 흔적이 강좌를 마친 자리와 강좌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꼬마 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멋지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진 꿈, 누군가에게 강제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향한 열망은 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직과 구속을 꿈꾸며, 평등을 멸시하고 자유롭지 않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잃어버린 꿈의 마지막 조각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만나봅니다.

2강_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화려한 영상은 굳이 활자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딱 짜인 아이들의 일과는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인 문학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은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문학책을 던져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번역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문학의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혹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3강_ 문화, 의미의 거미줄

문화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화생활을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보통 이때의 문화는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좁은 의미를 뜻하겠지요.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만들어낸 총체적인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뜻합니다. ‘문화’라는 단어를 뜯어본다면 글월 文과 化 될 화 化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 세계가 어떤 문화를 갖춰나간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기호의 체계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문학의 언어처럼 눈에 보이는 글자가 아닐 뿐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의미와 상징들로 이뤄진 문화라는 거미줄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세계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4강_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지만, 광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광고는 알 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이미지와 문구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주부들은 사지도 못할 고급 냉장고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왜 아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눈을 빼앗기는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강_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좀 으스스하지만,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모피어스가 나타나 속삭였을 법한 물음... 여러분은 자신이 사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혹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가상이라는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미디어 고등

BLACK MIRROR : 미디어, 거울 혹은 블랙홀 (5강)

★ 뇌를 마사지하고 몸을 지배하여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미디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활용하기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일시 2021년 1월 18~22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랑의 빠진 대중들은 미디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꺼진 미디어의 검은 창 안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꺼안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깎지 깎 수 있는 손가락만 있다면 미디어에 대한 사랑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강_ Ghost in the net : 미디어와 권력

잘나가는 무당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그 강렬한 목소리가 자신을 돌봐주는 귀신에 대한 믿음이라면 차라리 귀여울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알려서 한뭉텨 잡아보겠다는 욕망이라면 더 무시무시하진 않을까요? 무당은 영어로 'medium'이라고 번역하고 'medium'은 'media'의 단수형입니다. 미디어의 배후에는 어떤 신이 버티고 있을까요?

2강_ 거울 나라의 나르시스 : 미디어, 인간 신체의 확장

나르시스는 몰랐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모습이 확장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 모습에 중독되어 하릴없이 바라보면서도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숲속의 요정 에코는 나르시스의 탄식을 반복해서 울려퍼졌지만 나르시스는 그것이 자기 목소리의 확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르시스는 감각이 마비된 채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3강_ 미디어는 마사지다

학생, 엄마, 교사, 유재석, 류현진, 문재인... 미디어는 신문, TV, 인터넷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당

신은 어떤 미디어인가요? 혹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미디어는 아닌가요? 당신은 왜 그런 미디어가 되었을까요? 당신보다 힘이 센 어떤 다른 미디어가 당신이란 미디어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요.

“미디어 즉 폭력이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메신저가 된다. 이미지의 폭력은 바로 그 폭력을 매개체(미디어)로 해서 실재를 사라지게 만든다.”

당신은 어떤 미디어 혹은 어떤 폭력인가요?

4강_ 미디어는 메시지다

흑백 사진으로 찍은 나와 컬러 사진으로 찍은 나는 왜 다른 분위기를 낼까요? 스틸 사진과 보정된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자신의 진짜 모습에 가까울까요? CCTV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뉴스카메라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어떤 느낌인가요? 어쩌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미디어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엄마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도 어쩌면 무언가를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메시지인 지도 모릅니다.

5강_ 미디어는 모든 것을 삼킨다 : 미디어 비판

수많은 사람이 미디어를 비판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 역시 미디어를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디어는 그것이 자신의 덩치를 불리는 일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판마저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미디어는 두려워하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무자비한 비판의 채찍에도 몸서리치며 즐거워하는, 미디어는 최강의 마조히스트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겨울특강 소개 마침■